5년만에 돌아온 삼성물산

반포 재건축 두토끼 '정조준'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선정시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 추진
단지명 '래미안 원 펜타스'
내달 4일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반포 주공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과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에 도전장을 낸 삼성물산에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공사 선정 입찰 제안서 제출을 마감한 '신반포15차' 정비사업에는 5년 만에 정비업계에 재등판한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 마감 전에 보증금 500억원(현금 3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200억원)을 납부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입찰제안서와 입찰보증금을 3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제출하며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에게 밀린 이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조합에 재건축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원 펜타스'로 정하고,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2400억원 정도로 대형사업은 아니지만 9호선 신반포역, 한강공원과 가깝고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등 학군도 좋다는 평을 듣는 곳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단지는 기존 5층짜리 8개동, 18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로 탈바꿈한다.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는 다음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주전 승리가 삼성물산으로서는 다가올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당분간 서울 내 정비사업은 신반포15차 재건축과 반포3주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반포지역은 입지조건이 좋고, 클린 수주에 대한 민·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며 수주할 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반포3주구 현장설명회에는 보증금 10억원 납부라는 조건에도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6개 건설사가 참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입찰 보증금은 800억원으로, 현금 200억원과 6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면 된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8087억원, 3.3㎡당 공사비는 542만원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9호선 신반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구반포역 인근에서 진행돼 입지 상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이다. 반포3주구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입찰을 마감하고 5월 1일 시공사 합동 홍보 설명회, 5월 16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생활인프라 갖춘 '구도심' 아파트 청약시장 '핵인싸'

〈핵처럼 위력있는 메인〉

e편한세상남산 경쟁률 346.51대1
구도심, 시청·터미널 등 위치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방의 신규 아파트는 '구도심'에 입지한 단지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단지는 'e편한세상남산(346.51대1)',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126.71대1)', '광주화정아이파크2단지(67.13대1)' 등이다. 이 아파트는 시청·터미널과 가까운 구도심에 위치해 눈길을 끈다. 구도심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도 했다.

이 같은 결과가 올해 청약 및 분양시장에 그대로 이어질 지도 관심거리다. 구도심은 이미 생활인프라 등이 갖춰져 입주 후에도 상당기간 불편을 겪는 신규택지구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 구도심은 지역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 경우 시청과 터미널 등이 위치한 곳이 구도심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시청·지하철역·구청 인근이 구도심으로 분류된다.

올 상반기,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로 GS건설은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속초디오션자이' 84~131㎡ 45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동명항, 영금정,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3면의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속초 최초로 스카이 아너스클럽이 조성되며 드시엘 라운지, 드메르 게스트룸, 랑데부 파티룸 등이 들어선다. 동명동은 속초 교통의 중심지로서 속초시외 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 여객선터미널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오는 13일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 부평'(1409가구 중 46~84㎡ 837가구 일반분양)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백운역과 접하고 있어 일대 정비사업장 가운데 입지가 가장 우수한 구도심으로 꼽힌다. 또한 GTX-B 노선도 향후 개통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수원 장안구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666가구 중 4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원 원도심에 공급되는 첫 번째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도보 2분 거리에 영화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장안구청, 행정센터,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광주 남구 월산동에 '광주 월산 힐스테이트' 49~84㎡ 782가구 중 1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가깝고 월산초, 무진중 등의 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금호건설은 오는 4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군산 나운동 금호어울림' 59~84㎡ 993가구 중 3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은 상반기 중 의정부 가능1구역 재개발로 466가구 중 3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으로 백석천, 직동근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이규성 기자 peace@

목동9단지 안전진단 통과… 거래는 단 5건

〈3개월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D등급'
가격 상승폭 다소 줄어들어

서울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6단지에 이어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두 번째로 통과했다.

11일 정비업계와 양천구청에 따르면 전날 목동9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정밀안전진단은 A·B·C·D·E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D등급 이하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날 목동9단지가 받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공공기관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승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서울 양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727만원, 전세 138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목동 6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안전진단검사가 통과되자 전용면적 142㎡가 호가 3억원이 올라 2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목동9단지의 사정은 좋지 않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은"목동이나 강남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을 주도 했던 비 강남권 지역도 앞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동9단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71.37㎡가 매매 13억9000만원, 106.39㎡가 전세 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71.37㎡가 12억3000만원에서 1개월 사이 1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오름세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셈이다. 9단지는 지난해 12월 4건이 거래됐으며 1월에는 거래가 없다가 2월에 전용면적 106.93㎡가 14억원에 팔렸다. 3개월동안 단 5건이 거래됐을 뿐이다.

/정연우 기자

케이뱅크 행장에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
31일 정기 주총서 승인

케이뱅크 2대 은행장으로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사진**)이 내정됐다. 케이뱅크는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은행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2인의 최종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 케이뱅크 행장과 부행장 등 사내이사 2인의 임기는 이달 주주총회까지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지난달 말부터 후보 선임작업에 본격 착수해 이날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을 신임 행장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 내정자는 1989년 KT에 입사해 신사업개발담당, 경영기획부문장, 기업사업부문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8년부터 2년여간 BC카드를 이끌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에 앞장서왔다.

이 내정자는 2018년 BC카드 사장 취임 직후부터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플랫폼사업자로서의 변모를 꾀했다. 그 결과 올해 초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북 가입자가 800만명에 달하는 등 재임기간 중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고 2018년 국내 최초로 생체인증 국제 표준 규격(FIDO) 기반의 자체 안면인증 서비스 도입했다. 같은 해 업계 최초로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연수원, 코로나19치료센터로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그룹 연수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우리금융은 시·도 기관과 협의해 연수원 시설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지난달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기업 연수원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후 수도권 지역의 긴급 수요에 대비해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그룹 연수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즉시 지시했다.

우리금융은 연수원의 위치가 거주민이 많지 않은 외곽에 위치하고 102개 실 300개 침상을 보유, 내부조리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필요시 당국에 적극 협조해 연수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성시 우리금융그룹 연수원.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2개월간 임대료 30% 인하

대우건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를 비롯해 5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량에 대해 2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